

고용노동부는 「젠틀 몬스터」에 대해 1월 6일부터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,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26.(월) 국민일보(온라인), ‘주 85시간 근무 강요’ 논란 젠틸 몬스터...“청년 태위 성장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청년 노동자의 과로 및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틸 몬스터 본사((주)아이아이컴바인드)에 대해 이미 근로감독에 착수하였음(26.1.6, 보도참고자료 배포)
 -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동부지청이 합동 감독팀(7명, 포렌식 포함)을 구성하여,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 중임
 - *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 예정
 - 합동 감독팀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·재량근로제 등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포함하여, 휴가·휴게·휴일 부여 및 각종 수당 등 체불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것임
- 이번 감독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길 (044-202-7528)
			주무관	오성곤 (044-202-7531)

